

한일여대생의 주거관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View of Housing between Korean and Japa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

정미란* · 안옥희**
Jung, Mi Ran · An, Ok 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view of housing of Korean and Japa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view of housing was investigated in four stages - housing consciousness, resident opinion, ideal housing and housing needs - in this study.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the self-entry questionnaire designed for this study and the sample of 400 in total, 200 cases from Korea and 200 cases from Japan.

The results are as follow : The major findings of the housing consciousness were that Japa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 preferred the detached in the future. The resident opinion of Korean and Japa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 showed that the group space was more important than the private space. In the ideal image, they wanted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mfort from their houses. In the housing needs, Korean have considered the distance of friend and family and been satisfied with interior design, whereas Japanese have considered the expression of social level and been satisfied with outdoor design.

I. 서론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나도록 오늘날 우리의 삶은 세계 여러 나라와 다각적인 측면의 교류를 하고 있으며 주거문화 또한 세계적인 교류활동을 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은 전통적인 사회에서와는 달리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거주자의 속성을 고려하여 각 가족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하여 주어지기 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보통 수준의 만족범위 내에서 계획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거내의 어느 한 곳도 거주자의 가족 특성에 맞지 않아 개조를 하거나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으로 주거에 대한 가치나 욕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거주자들의 주거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간의 주거에 대한 생각은 자기의 주거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람에 따라 다양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거에 대한 가치관은 남녀노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학력의 차이에서 오는 이해도의 차이에서도 주거에 대한 의식이 다르다. 또한 경제적인 격차와 사회적인 속성 및 생활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 요소들이 서로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주거관은 공간을 구성하는 평면계획 뿐만 아니라 주택의 외관, 공사의 내용, 주거의 관리, 주택의 소유관계, 소유의식, 생활방식 등에 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주거관 중에서도 몇 가지는 전통성이 강하며 오랜 세월

* 정희원, 영남대 가정학과, 박사과정

** 정희원, 영남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학술박사

동안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집’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공지붕의 단독주택을 떠올린다는 점, 주택의 시설과 설비가 선진화되어도 안방은 대부분 온돌로 만든다는 점, 그리고 부부가 기거하는 방의 호칭은 거의가 ‘안방’이고 가족의 단란한 장소로도 이용된다는 점등이 그것이다¹⁾.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발전과 연관하여 진전되는 사회적·문화적 발달에 따라 특수계층의 귀족의식이 평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특히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막대한 영향에 힘입어 생활평준화에 대한 지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개인이나 가정의 가치관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주택관련 회사와 연구자들이 소비자의 주거관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은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주택내의 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가족원이 주부이며 주거의 선택권이 주부에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주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데 주부의 주거관만을 파악하면 현재의 주거관만 알 수 있을 뿐, 이를 실제로 계획에 옮기는 동안에 거주자의 주거관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미래의 소비자의 의식변화를 파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모든 소비재와 상품뿐 만 아니라 주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크게 수요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세대 소비자의 주거관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선호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이들에게서 나타날 것이므로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이나 미래 주거유형개발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신세대 소비자들의 주거에 대한 선호와 기대를 파악하고 예측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²⁾.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미래 주거문화의 중심이 될 신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 여대생과 일본의 여대생의 주거관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주거문화와 일본의 주거문화의 인터페이스를 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주거관이란 용어는 그 동안 엄밀한 개념규정도 없이 상용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주거관이라 하면 주택과 그 속에서의 주생활에 관한 개인이 갖는 생각을 말한다.

西山卯三은 「주의식」이란 여러 가지 생활욕구 가운데 주요구가 발전해나가는 것을 추구하고 조건 지우는 심리적 정신적인 기반 즉, 사람들의 생에 대한 잠재적인 태도, 관심을 가르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의식이 단순한 견해로서 표현될 때 그것은 「주의견」이 되며 이는 당면한 사실에 대하여 산발적이며 단편적인 것이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계통화되고 객관화된 것이 「주택이상」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 의견, 이상을 합해 「주거관」이라 규정하고 있다³⁾.

比浦かほる, 上林博雄은 주생활을 크게 지배하는 주거관은 인생관, 생활관의 일부이며 주거에 대한 지속적,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지지만 그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긴 시간동안 계속되는 유동적인 것이므로 이해하고 파악하기 힘들고 복잡하다고 하였다. 그 구성요소를 분석해 보면 개인의 거주경력, 가정환경, 기성(취미성) 등에 의해 이루어져 있음이 고려된다고 한다⁴⁾.

扇田信은 주거관의 발전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그림 1).

- 2) Hohm, C. F.(1983), Expectations for Future Home Ownership, Housing and Society, 10.
- 3) 西山卯三(1957), 住居觀について, 住宅 6(7).
- 4) 比浦かほる, 上林博雄(1967), 住生活と住宅の型展開に関する研究, 大阪市立大學 家政學部紀要, 第1卷.

1) 윤복자·지순(1992), 기초주거학, 신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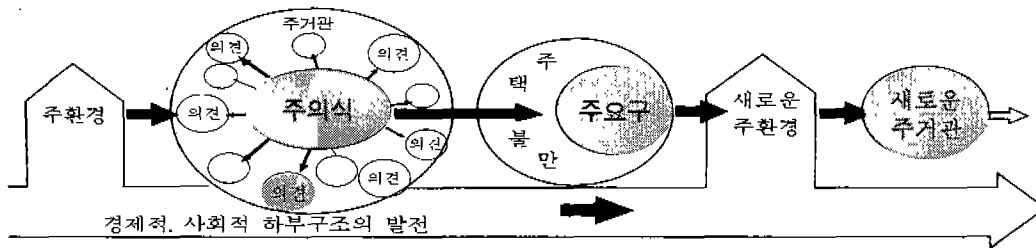


그림 1. 주거관의 발전단계

즉, 주거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를 만들어 내는 잠재적 기반이 되는 의식이 「주의식」이며, 주의식을 기초로 그것이 구체적인 말, 문장이 되어 단편적인 의견, 견해의 형태로 표현될 때 그것은 「주의견」이 된다. 주의견이 하나의 체계적인 의견으로 구성되어 주택에 대해 종합된 이미지를 그려내는 경우를 「주택이상」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들의 의식형태가 현실의 주거·주생활에 대해서 각각의 독특한 본연의 상태에서 모순을 느껴 ‘불만’을 가지게 되면 이런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가지는 것을 「주요구」라 한다. 즉, 扇田信은 주의식에서 발동하는 주의견, 주택이상, 주요구 등을 포함해서 「주거관」이라 생각하였다⁵⁾.

이 견해가 西山卯三과 다른 것은 주의식을 포괄하는 주거관은 거주자가 놓여져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하부구조 즉, 거주자의 거주환경 자체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이다.

신경주는 扇田信의 주거관 네 단계(주의식, 주의견, 주택이상, 주요구)를 거쳐서 형성된 가족 각자의 주거관을 파악하여 몇 가지 유형화된 패턴으로 분류해 각 패턴에 적합한 주택계획을 시도하고자 하였으며, 주거관의 유형을 원시적인 잠자리 의식형, 격식과 접객을 중시하는 시위 의식형, 핵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마이홈 주의형, 뭐든지 새로운 것을 쫓는 유행추구형으로 분류하였다⁶⁾.

이상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주거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주거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사회계층, 생활경력, 개성 등이 우리들의 인생관과 생활관을 형성하고 이것들의 요소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주거관이라고 하는 대단히 복잡한 생각이 형성되어 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따라서 주거관을 이루는 한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기 보다는 주거관을 이루는 각 요소를 통합하여 다루어 주거관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扇田信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주거관을 주의식, 주의견, 주택이상, 주요구의 네 단계를 거쳐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Ⅲ. 조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조사를 위한 개념적 틀을 정하고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인 한일 여대생의 주거관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설문지에 의한 조사연구로 수행하였으며, 연구대상은 한국의 경우는 대구·안동에 소재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였고 일본에 있어서는 東京·京都지방에 소재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일여대생 각 200명씩을 무작위 표본추출 하였다.

5) 扇田信(1984), 住生活學, 朝創書店.

6) 신경주(1990), 주거학, 수학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적인 사항*

변인	구분	N (%)	
		한국	일본
가족수	4人以下	65 (32.5)	99 (49.5)
	5인	86 (43.0)	60 (30.0)
	6인 이상	49 (24.5)	41 (20.5)
	평균	4.97 인	4.71 인
가족 형태	핵가족	181 (90.5)	141 (70.5)
	확대가족	19 (9.5)	55 (28.1)
주거 형태	독립주택	102 (51.0)	161 (80.5)
	공동주택	98 (49.0)	39 (19.5)
거주 연수	1년 미만	29 (14.5)	16 (8.0)
	1-5년 미만	72 (36.0)	26 (13.0)
	5-10년 미만	53 (26.5)	34 (17.0)
	10년 이상	46 (23.0)	124 (62.0)
	평균	6.3 년	13.6 년
주택 소유 형태	부분임대	25 (13.2)	31 (16.1)
	집전체 임대	10 (5.3)	159 (82.8)
	자가**	154 (81.5)	2 (1.0)
방소유 형태	혼자 사용	120 (60.3)	171 (96.1)
	공동 사용	79 (39.7)	7 (3.9)

* missing value에 의해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 용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도 포함함

조사시기는 한국은 1997년 5월과 1998년 3월, 일본은 1997년 5월- 9월이며,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扇田信의 주거관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되도록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한일여대생의 주의식의 요소에 있어서 과거·현재·미래의 주택유형은 어떠하며, 현재 주택에서 거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한일여대생의 주의견의 요소에 있어서 주거의 기능과 주택내의 가장 중요한 공간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3. 한일여대생은 주택이상의 요소에 대해서 주택에 관한 이상상은 무엇인가?
4. 한일여대생의 주요요구의 요소에 있어서 주거 선택시 고려점과 현주거에 대한 만족정도는 어떠한가?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WIN 7.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빈도, 백분율, χ^2 -검증, t-test를 하였다.

IV. 조사결과 및 논의

1. 주의식의 파악

1) 과거·현재·미래의 주택유형 비교

주택유형은 소비자의 공간사용행태, 주거환경의 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 주택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한국의 주택유형 구성비는 크게 변화되어 왔는데 독립주택의 1995년 구성비는 33.3%로 90년에서 95년 사이의 연평균 증가율은 -3.0%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아파트의 경우 1995년 구성비는 42.4%로 전체주택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되었으며, 증가율은 90년~95년 사이에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다⁷⁾. 또한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는 젊은 세대일수록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여대생이 과거에 경험했던 주택유형이 현재의 주택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현재의 주택유형이 앞으로 희망하는 주택의 유형과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일여대생이 선호하는 주택유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표 2, 표 3).

표 2. 과거와 현재의 주택유형 비교

변인	과거 주택	N (%)	
		독립주택	공동주택
한국	현재 주택	87(59.2)	11(23.4)
	공통주택	60(40.8)	36(76.6)
비 고		$\chi^2 = 18.238^{***}$	
일본	현재 주택	99(88.4)	34(63.0)
	공통주택	13(11.6)	30(37.0)
비 고		$\chi^2 = 14.793^{***}$	

*** p<.001

7) 통계청(1995), 인구 및 주택 총조사.

표 3. 현재와 미래의 주택유형 비교

변 인		현재 주택		전 체
		독립주택	공동주택	
한 국	미래 주택	58(57.4)	48(49.5)	106(53.5)
	공동주택	43(42.6)	49(50.5)	92(46.5)
비 고		$\chi^2 = 1.254$		
일 본	미래 주택	148(94.9)	30(78.9)	178(91.8)
	공동주택	8(5.1)	8(3.1)	16(8.2)
비 고		$\chi^2 = 10.240^{***}$		

*** p<.001

그 결과, 한국인의 경우 과거에 독립주택에 거주했던 사람은 현재 독립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과거에 공동주택에 거주하였던 사람은 현재에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의 주택유형과 현재의 주택유형이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과거에 거주했던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현재 독립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선호하는 주택유형을 보면, 한국인의 경우 현재 독립주택에 거주하는 여학생은 미래의 선호주택으로서 독립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여학생은 공동주택을 선호하고 있으며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여대생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모두가 독립주택을 선호하고 있으며, 현재의 주택유형이 미래의 주택유형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P<.001)을 미치고 있다.

즉, 한국인은 과거-현재-미래의 주택유형이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본여대생은 독립주택에 대한 지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전문가(학계, 연구소, 실무자로 구성)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는 독립주택(2%)보다는 빌라(21%)나 연립주택(9%)을 다른 국가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나 직업유형에 따라서 장래의 선호하는 주택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현재의 주택에 거주하는 이유

현재의 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를 살펴본 결과(표 4), 한일 양국간에 거주이유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다(p<.001). 한국의 여대생은 「부모님의 선택」, 「현주택의 생활편리」, 「형제들의 학교문제」의 순으로 그 이유를 들고 있는 반면 일본 여대생들은 「상속된 주택」, 「부모님의 선택」, 「형제들의 학교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현재 주택에 거주하는 이유

변 인	N(%)		
	한 국	일 본	전 체
부모님의 선택	68 (34.3)	34 (18.1)	102 (26.4)
현주택의 생활편리	28 (14.1)	24 (12.8)	52 (13.5)
형제들의 학교문제	23 (11.6)	32 (17.0)	55 (14.2)
이사의 경제적 여건부족	22 (11.1)	15 (8.0)	37 (9.6)
주거환경이 양호	20 (10.1)	6 (3.2)	26 (6.7)
부모님의 직장때문	20 (10.1)	14 (7.4)	34 (8.8)
교통이 편리	11 (5.6)	19 (10.1)	30 (7.8)
상속된 주택	6 (3.0)	44 (23.4)	50 (13.0)
비 고	$\chi^2 = 53.826^{***}$		

*** p<.001

여기에서 일본의 경우는 가업이나 주택을 대대로 이어받는 주거·문화적 배경을 엿볼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대학생들은 아직은 주거선택에 대한 현실성이 없어 주거선택이 자기주체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의건의 파악

1) 주거의 기능

주거의 기능에 있어서 한일 여대생들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표 5), 한일 여대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거의 기능은 차이가 있었다(p<.001).

한국인은 「가족의 단란과 화합의 장소」를 1순위로 들고 있는 반면, 일본인은 「가족보건·휴식의 장소」를 1순위로 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한국 여대생은 주거를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높은 가치관을 두는 반면, 일본 여대생들은 신체적 안락함에 그 가치관을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5. 주거의 기능

변 인	N(%)		
	한 국	일 본	전 체
가족단란·화합	115 (58.7)	62 (31.8)	177 (45.3)
가족보건·휴식	59 (30.1)	102 (52.3)	161 (41.2)
부부생활·자녀양육	13 (6.9)	12 (6.2)	25 (6.4)
가족의 보호	9 (4.6)	19 (9.7)	28 (7.2)
비 고	$\chi^2 = 30.964$ *** p<.001		

2) 주택내의 중요공간

주택 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공간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표 6), 양국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요공간으로서 한일 모두 거실을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한국인은 다음으로 큰방(안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일본은 거실 다음으로 부엌을 중시하고 있어 한국의 경우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거실(居間)이 52.9%, 부엌이 22.1%의 비율로 중요시되고 있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거실과 부엌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부실이며, 가족 전원이 관계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시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들고 있다⁸⁾.

이상에서 한일 여대생들 모두 각 개실보다 가

족이 사용하는 공간 즉, 거실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주택의 거실계획시 개실공간과 공동공간과의 연계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배치와 거주자들이 디자인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표 6. 가장 중요시 여기는 주택공간

공 간	N(%)		
	한 국	일 본	전 체
거 실*	97 (48.5)	94 (47.0)	191 (47.8)
부 엷	20 (10.0)	38 (19.0)	58 (14.5)
욕 실	24 (12.0)	25 (12.5)	49 (12.3)
큰방(안방)**	36 (18.0)	24 (12.0)	60 (15.0)
작은방(자녀방)	8 (4.0)	9 (4.5)	17 (4.3)
다용도실	9 (4.5)	5 (2.5)	14 (3.5)
마당(팔코니)	6 (3.0)	5 (2.5)	11 (2.8)
비 고	$\chi^2 = 9.346$		

** '거실'의 명칭에 대해서는 한일 공통성을 들기 위해서 living room의 의미로 들었으며, 일본의 경우 '居間'으로서 'お茶の間'와는 다른 공간임을 명시하였음.

** 큰방(안방)은 부부가 거주하는 방이며 물리적인 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3. 주택이상상의 파악

한일 여대생의 주택이상상에 대해 살펴보기

표 7. 주택이상상

항 목	N(%)			
	한 국	일 본	전 체	비 고
반드시 내집을 마련	158 (79.0)	54 (27.3)	212 (53.3)	$\chi^2 = 106.947$ ***
세를 살더라도 집값 돈을 다른 곳에 투자	34 (17.0)	16 (8.0)	50 (12.5)	$\chi^2 = 7.406$ **
세를 살더라도 마당 있는 집을 선호	39 (19.5)	62 (31.0)	101 (25.3)	$\chi^2 = 7.007$ **
세를 살더라도 자가용 소유를 희망	69 (34.5)	3 (1.5)	72 (18.0)	$\chi^2 = 73.780$ ***
양육보다 전통가옥 선호	30 (15.0)	45 (22.5)	75 (18.8)	$\chi^2 = 3.692$
같은 지역 거주를 희망	105 (52.5)	118 (59.0)	223 (55.8)	$\chi^2 = 1.713$
생활주기에 따라 이사할 희망	99 (49.5)	105 (52.5)	204 (51.0)	$\chi^2 = 0.360$
시골보다 대도시 선호	115 (57.5)	72 (36.0)	187 (46.8)	$\chi^2 = 18.568$ ***
시가지보다 교외에서 거주를 희망	112 (56.0)	77 (38.5)	189 (47.3)	$\chi^2 = 12.287$ ***
주거보다 취미·레저에 투자	118 (59.0)	90 (45.0)	208 (52.0)	$\chi^2 = 7.853$ **
집을 잠자는 곳으로 생각	6 (3.0)	23 (11.5)	29 (7.3)	$\chi^2 = 10.744$ ***
유행에 따라 실내장식 변화를 희망	170 (85.0)	74 (37.0)	244 (61.0)	$\chi^2 = 96.847$ ***
집을 가족의 단란장소로 생각	179 (89.5)	147 (73.9)	326 (81.7)	$\chi^2 = 16.303$ ***
집을 심신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생각	192 (98.0)	187 (94.0)	379 (95.9)	$\chi^2 = 4.043$ *

*p<.05 **p<.01 ***p<.001

8) 豊かな住生活を考える會(1994), 日本の住宅がわかる本, PHP.

위해(표 7), 14개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일치 여부를 알아본 결과, 11개 항목에 대해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일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크게 나타난 항목(p<.001)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반드시 내집을 마련」의 항목에 있어서는 일본 여대생에 비해 한국 여대생들의 희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대도시 선호도」, 「교외에서의 거주희망」, 「유행에 따라 실내장식의 변화를 희망」의 항목에 있어서도 한국 여대생들의 일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일본 여대생들보다 한국 여대생들은 주거에 대한 소유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한국여대생은 대도시를 선호하면서 주거의 희망지로서는 오히려 교외지역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적 여건과 교육환경, 교통편의에 대해서는 대도시를 선호하지만,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대도시의 중심지보다는 부심적인 위치인 교외지역을 선호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결과는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 출퇴근과 자녀교육 환경으로서는 대도시를 선호하는 반면 주거환경과 노후대책을 위해서는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하는 결과⁹⁾와 비슷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실내장식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한국인은 85%의 높은 요구를 나타낸 반면 일본인은 37%의 요구도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은 3기 주택공급 정책(1976-1980)이후 양적 공급에서 벗어나 질 중심의 거주수준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의 주택공급 정책은 아직까지도 양적 공급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공동주택에 있어서 거의 획일적으로 계획되는 실내장식과 마감처리에 거주자들의 불만이 높았다¹⁰⁾는 보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주택 상황의 경험이 대학생의 주거관에 영향을 미쳐 주택이상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사료된다.

「집을 잡자는 곳으로 생각」하는 항목에서는 그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기는 하나 일본 여대생의 긍정적인 답변이 한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

으며, 「집은 가족단란 장소」로 생각하는 비율은 한국 여대생 쪽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주거의 기능에 대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한국 여대생은 가족단란을, 일본 여대생은 가족휴식을 더 중시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 주요구의 파악

주요구의 파악을 위하여 대학생 자신들의 주택을 선택할 때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고려할지를 살펴보았다. 25개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식 측정을 하여 한일 비교한 결과(표 8), 「친구, 친척과의 거리」, 「매매용이」, 「동네평판」의 항목을 제외한 22개 항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군」, 「가족의 사회적 지위표현」의 항목에서만 일본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에 비해 많은 고려를 하고 있고, 그 이외의 항목에서는 한국 여대생의 고려정도가 일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8. 한일 여대생들의 주거선택시 고려정도

변 인	한 국		일 본		t-value
	M	SD	M	SD	
방배치	2.37	1.42	1.66	0.93	5.903***
방면적	2.50	1.26	1.79	0.84	6.535***
방의수	2.51	1.34	1.89	0.91	5.363***
베란다, 마당	2.55	1.21	1.87	0.94	6.231***
주차시설	2.49	1.36	1.84	0.91	5.570***
내부시설(난방, 급배수)	2.40	1.60	1.81	0.86	4.633***
안전성(방범)	2.42	1.64	1.76	0.92	4.957***
소음환경	2.62	1.26	2.19	0.92	3.950***
실내채광, 환기상태	2.39	1.50	1.63	0.84	6.210***
실내디자인	2.47	1.36	1.78	0.96	5.877***
실외디자인	2.67	1.11	1.91	0.94	7.347***
교통편리	2.49	1.55	1.81	0.81	5.536***
주변 편의시설	2.50	1.32	2.00	0.87	4.489***
학군	2.68	1.08	2.94	1.04	-2.436***
자녀관련근린시설	2.70	1.13	2.43	1.10	2.486***
이웃의 생활, 교육수준	2.80	0.96	2.47	0.98	3.323***
주변의 풍치, 녹지지대	2.64	1.22	2.10	0.87	5.068***
친구, 친척과의 거리	3.10	0.90	2.96	1.10	1.343
가족의 사생활보장	2.53	1.37	2.09	0.95	3.782***
가족의 사회적 지위표현	3.01	0.90	3.21	1.05	-2.064*
주택건설회사의 신뢰도	2.63	1.28	1.91	0.97	6.352***
동네평판	2.86	0.96	2.81	1.02	.505
투자전망	2.87	1.07	2.39	1.08	4.437***
매매용이	2.88	1.00	2.72	1.10	1.513
유지관리비	2.67	1.20	2.41	0.95	2.389*
전 체	2.65	0.95	2.19	0.50	5.964***

*p<.05 ***p<.001

9) 한국일보(1995. 5. 11), 경제뉴스, 8면.

10) 김미희·이유미(1998), 주생활양식 유형과 공동주택내부·외부공간의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9권 2호.

전체적으로 한일 양국의 여대생 모두 보통 이하의 낮은 고려정도를 보이고 있어 주거선택이라는 구체적인 경험이 적은 집단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인은 친구·친척과의 거리를, 일본인은 가족의 사회적 지위표현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선택시 고려점과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현재의 주거에 대한 만족정도를 5점 Likert식 측정을 하였다(표 9). 전체적으로 보면 한일 양국인 모두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술한 고려정도보다 평가치가 약간 높았으며 한국인은 실내디자인을, 일본인은 실외디자인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다.

한일 양국간에는 「방배치」, 「방면적」, 「방의 수」, 「내부시설」, 「실내디자인」, 「베란다, 마당」, 「유지관리비」의 항목을 제외한 18개 항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전술한 주거선택시 고려정도에 비해 만족도에서는 양국간의 차이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실외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일본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 여대생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택이상상에서 나타났듯이 일본 여대생은 마당이 있는 집, 전통가옥의 선호가 한국 여대생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어 실외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9. 한일 여대생의 현주거에 대한 만족도

변 인	한 국		일 본		t-value
	M	SD	M	SD	
방배치	2.93	0.97	3.07	1.05	-1.341
방면적	2.99	1.05	3.10	1.10	-.978
방의 수	2.94	1.24	2.83	1.22	.890
베란다, 마당	2.98	1.05	2.81	1.15	1.460
주차시설	2.84	1.17	2.43	1.25	3.371***
내부시설(난방, 급배수)	2.83	1.16	2.71	1.16	1.075
안전성(방법)	2.81	1.08	2.57	1.11	2.200*
소음환경	2.91	1.20	2.25	1.18	5.550***
실내채광, 환기상태	2.82	1.16	2.59	1.11	1.979*
실내디자인	3.10	0.96	3.19	1.12	-.873
실외디자인	3.03	0.93	3.28	1.08	-2.460*
교통편리	2.96	1.36	2.65	1.35	2.261*
주변 편의시설	3.07	1.25	2.55	1.20	4.217***
학군	2.92	0.91	2.62	0.94	3.180**
자녀관련근린시설	3.09	0.97	2.81	1.05	2.724**
이웃의 생활, 교육수준	2.92	0.73	2.56	0.88	4.413***
주변의 풍치, 녹지지대	2.81	1.13	2.42	1.12	3.505***
친구, 친척과의 거리	3.00	0.97	2.71	1.03	2.861**
가족의 사생활보장	3.05	1.02	2.64	1.10	3.786***
가족의 사회적 지위표현	2.97	0.59	2.76	0.71	3.344***
주택건설회사의 신뢰도	2.98	0.83	2.74	0.95	2.597**
동네평판	2.86	0.75	2.66	0.94	2.262*
투자전망	3.05	0.70	2.82	0.84	2.895**
매대용이	2.98	0.75	2.94	0.75	.575
유지관리비	2.89	0.82	2.81	0.75	.982
전 체	2.95	0.47	2.75	0.48	4.057***

*p<.05 **p<.01 ***p<.001

V. 결 론

본 연구는 앞으로 주거문화의 주체가 될 한일 여대학생들의 주거관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의식으로 주택유형과 현주택에 거주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한국인은 과거-현재-미래의 주택유형이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본 여대생은 현재의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독립주택을 선호지향하고 있어 미래에 선호하는 주택유형은 한일 양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주의견으로 주거의 기능에 대해서는 한국 여대생은 가족의 단란과 화합의 장소, 일본 여대생은 가족의 보건과 휴식장소로서 가장 큰 가치를 들고 있다.

그리고 주택내 중요 공간으로서는 양국인 모두 거실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확보와 각 가족원이 다양한 생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동공간에서의 설비계획에 유념하여야 하겠다.

셋째, 주택이상상을 파악한 결과 양국인 모두 집은 가족의 건강과 단란의 장소라는 생각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해 주택소유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양국 모두 주거의 쾌적성과 단란성을 고려한 주거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자가소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주택 정책, 주거금융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택이상상은 전술한 주의건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어 주의건과 주택이상상은 주거관 형성에 중요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주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주거에 대한 만족도와 주거선택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고려사항과 만족도 모두 한국 여대생이 일본 여대생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한국인은 친구·친척과의 거리를 가장 고려하며 실내디자인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반면, 일본인은 가족의 사회적 지위표현을 가장 고려하며 실외디자인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주거관에 대한 한일 여대생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양국간에 주택의 기능이나 주택의 이상상 등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의 형태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주택유형과 만족항목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택산업계에 있어서는 미래 주택의 수요자의 주거의식을 파악하여 실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계획을 하고, 소비자는 미래지향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아 만족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그리고 한일의 자료를 주생활에 대한 비교문화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는데 공업화 주택의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국가별 주거관의 비교와 시계열적인 분석 등 주거관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는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순주·김상희(1997), 현대주거학, 교문사.
2. 김홍규·하미경(1997), 21세기를 대비한 주택 및 주택단지 구상, 건축, p.30-36.
3. 대한주택공사(1997), 97 무주택가구 주거실태 조사 보고서.
4. 안옥희·윤재용·배정인(1997), 주거학의 이해, 기문당.
5. 주택산업연구원(1996), 도시유형별 주택수요분석.
6. 최일·조희철(1997), 한·일 집합주택의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13권 5호.